



장성군 “업그레이드 된 꽃강 기대하세요”

2019 좋은 경관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인 장성 황룡강에 불거리가 더욱 풍성해진다.

장성군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2019년 좋은 경관 만들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도비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좋은 경관 만들기 사업은 도내 전체의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매력적인 경관자원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군은 황룡강에 꽃 조형물을 설치해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꽃강을 만드는 내용으로 공모에 참여했다. 자연지형을 고려한 친자연적인 정원을 조성하여 꽃강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

는 황룡강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하고, 지역 주민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군은 황룡강변 꽃길과 주변 경관에 어울리는 식재모형을 디자인하고 5월 중 개최되는 「장성 황룡강 홍길동무 꽃길 축제」 기간에 맞춰 관광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조형물이 설치되면 새로운 볼거리로 인해 보다 많은 관광객이 황룡강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항미리랜드 테마공원 조성 등과 조화롭게 추진하며 황룡강을 장성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봉채영 기자



송암영업소 전경.

광주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 효과 ‘톡톡’

정체현상 예방·이동시간 감축 등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2순환도로 하이패스가 효과를 톡톡히 나타내고 있다. 광주시는 2016년 7월1일 제2순환도로 송암·유터영업소 하이패스 개통에 이어 같은 해 9월1일 소태영업소를 개통하는 등 제2순환도로 전구간에 하이패스 상·하행 각 2차로씩을 운영하고 있다.

하이패스 개통 이전 유인처리시스템의 경우 통행료 결제 시간이 8~10초 소요된 반면, 하이패스 설치 후에는 1초 정도 짧아지면서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 명절기간 차량 정체로 인한 통행불편이 해소됐다. 또 이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연료비 절감의 경제성

효과, 자동차 배기가스 감소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 다양한 효과가 발생했으며,하이패스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통과차량의 73~77%(소태영업소 기준) 이상이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2018년 교통 관련 기초조사 결과 제2순환도로 통행속도가 평균 76.64km로 광주시 주요 도로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하이패스 개통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로 제2순환도로 통행수입도 전년보다 증가(소태:4% 증가, 송암:6% 증가, 유터:3% 증가, 2018년 기준)했으며, 송암영업소 구간의 시 지원금이 전년보다 13%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다수 발생했다. /광주=봉채영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58 | 해질 / 19:07

4월 15일 (월) 음력 : 3월 11일

수도권 날씨 5 ~ 17°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연천 -1/18, 동두천 1/18, 가평 -1/19, 양평 1/19, 용인 4/17, 평택 2/19, 인천 7/15, 수원 4/17, 파주 -0/17, 서울 5/17, 백령도 6/15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광주 ‘백운고가’ 30년만에 철거

철거 위한 공사업체 선정작업 추진 지하차도 건설 등 여러 방안 고려

광주시내 대표적인 위험도로인 백운고가도로가 개설 30년만에 철거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백운고가도로 철거를 위해 공사업체 선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철거기간이 6개월 정도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달 또는 6월까지 철거업체가 선정되면 백운고가도로는 올해 말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철거된 백운고가도로 위치에는 지하차도 건설과 푸른길공원 연결다리 개설 등 다양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운동~주월동을 연결하는 백운고가도로는 길이 386m, 폭 15.4m로 지난 1989년 11월 개통했다.

하지만 급경사와 급커브 구간으로 건설됐으며 하루평균 16만여대의 차량이 통행해 크고작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또 백운고가도로는 중단 경사도 규정인 5%보다 높은 6.4%이고 차량 정지시야(정지시거)도 110m보다 낮은 43m에 불과해 대표적 위험도로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철거 논의가 진행됐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실행되지 않았다.



광주 남구 백운동 백운고가도로.

/뉴스스

지난 2011년에는 남구가 백운고가도로 철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광주도시철도 2호선 구간 공사과 맞물려 철거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철거가 지지부진한 사이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지난해 4월 광주 법원은 사고에 대해 광주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6월 10일 오전 1시 15분께 백운고가도로에서는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고가도로 정상부분에서 난간을 받은 뒤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부모는 광주시가 도로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광주시가 양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중앙분

리대와 방호울타리를 설치했어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광주시가 A씨 부모에게 위자료 등 총 549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백운고가도로 철거를 위해 공사업체 선정작업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며 “사업규모는 규정상 알려 줄 수 없으며 업체가 선정되면 곧바로 철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 말 또는 내년 초 백운고가도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백운고가도로가 설치된 구간은 차량통행량이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대체도로 개설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봉채영 기자 bcy2020@metroseoul.co.kr

진주 서부시장 재건축 본격화… 내몰린 영세업자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 신청 승인 턱없이 모자라는 지원비 갈 곳 없어

시설 노후화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던 진주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갑작스럽게 점포를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이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다.

지난 3월 진주시가 부산의 한 업체에게 해당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하에는 주차장, 지상 1층에는 시장, 그 위로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는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승인을 해줬다.

그런데 재개발사업 업체 측에서 시장 내에 있는 세입자들에게 점포를 비우는 조건으로 이사비 명목으로 70만원과 인근 이현동 공터에 마련할 임시시장에서 영업을 이어간다면 시설비 300만 원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세입자들은 이 돈으로는 다른 곳에서 장사를 시작하기엔 턱없이 모자란다는 주장이다. 수십 명의 상인들은 당장 이곳을 떠나지도 못하고 당분간은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는 상태다. 점포주와 세입자 그리고 인근 주민들 간에 상생을 위한 배려가 절실해 보인다.

이처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건물 신축에 따라 점포를 비워 달라는 상태에서 갑자기 갈 곳도 없는 점포주와 세

입자들은 앞으로 작은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청년 창업 성공의 꿈을 안고 1년여 전 진주 서부시장 모퉁이에 주점을 연 김보경 씨는 지난달 시장 측으로 부터 이달 말까지 점포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다.

김보경 씨는 14일 “청년점포가 많이 생겨서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비워달라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25년 동안 서부시장을 지켜 온 김영근 씨도 “갑자기 나가라니까 어디 갈 때도 없고 당장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그게 문제”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정성수 서부시장 재건축 대책위원장은 “모든 시설과 옮겨야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사비 70만 원만 가지고 비우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진주=이경화 기자 7470002@

남해 지족해협 죽방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의 죽방렴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남해군은 남해 12경 중 하나로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국가중요어업유산, 문화재청의 명승 71호와 생생문화재로도 지정돼 있는 죽방렴이 지난 3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되면서 보존 가치성을 또 한번 공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남해군에는 물살이 드나드는

지족해협에 대나무 받을 세워 멸치를 잡는 원시어구인 죽방렴 23개가 보존돼 있다. 문화재청은 ‘전통어로방식-어살’(죽방렴)이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물고기의 습성, 계절과 물때를 살피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있다는 점 ▲어촌문화와 어민들의 어업사,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남해 죽방렴.

역할을 한다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고 밝혔다.

/경남 남해=신용민 기자 sbegood@